

은행 (Positive)

11월 연체율: 법인 중기에서의 개선이 필요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5년 11월 말 연체율은 0.60%(+8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11월과 비교해 연체 정리가 낮았음에도, 신규 연체가 재차 감소함으로써 연체율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2026년 중 연체율 개선(YoY) 전환을 전망합니다. 법인 중기 차주의 연체잔액 증가율이 유의한 하향 안정화 보이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국내은행 11월 말 연체율 0.60%(+8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5년 1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60%(+8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98%(+20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6%(+5bp YoY)로 상승.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16%(+13bp YoY)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21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가계 연체율은 0.44%(+3bp YoY)로 상승. 신용 등 일반대출은 0.90%(+8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30%(+3bp YoY)로 2025년 월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상승폭(주택 +3~4bp, 일반 +7~8bp)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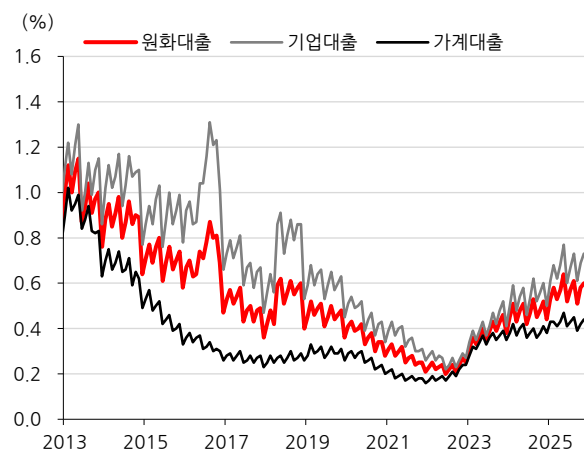
연체 정리 규모의 감소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11월 말 14.8조원으로, 22% YoY 증가한 것으로 추산 (그림7)
- 11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2.6조원으로 직전 12개월 평균보다 10% 감소함 (그림9).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도 1.9조원(-5% YoY) 감소했는데, 최근 10년간의 11월 연체 정리율로써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그림10). 코로나 국면의 후기인 2022년 11월부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YoY)감소한 적이 없었으나, 2025년 들어 전년 동월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기업 (추정): 11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26% YoY로 추산. 기업대출 및 연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중소기업의 연체 증가율은 2025년 하반기 들어 +20~30% YoY로 낮아졌는데(직전 12개월 +40% YoY),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야 연체율 둔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12)
- 가계 (추정): 11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1% YoY로 추산. 이 또한 근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보다는 상승했지만 추세적인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12)

법인 중기에서의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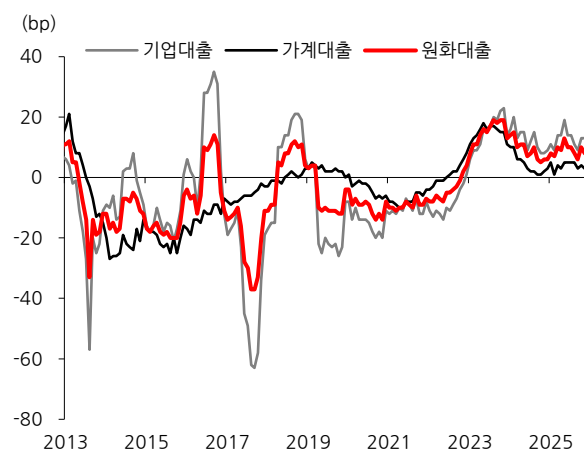
- 지난 10월에는 연체 정리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 연체는 증가하면서 연체잔액이 기대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11월 지표는 연체 정리를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연체가 재차 감소함으로써 연체율 상승폭이 축소됨. 계절성을 감안한 3개월 이동평균 연체잔액은 그 규모가 7개월째 횡보하고 있음 (그림7)
- 2026년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YoY)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다만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법인 중소기업 차주의 연체 추이임. 법인 중기의 연체잔액 증가율이 유의한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것이 연체율 개선 기대의 전제조건일 것으로 판단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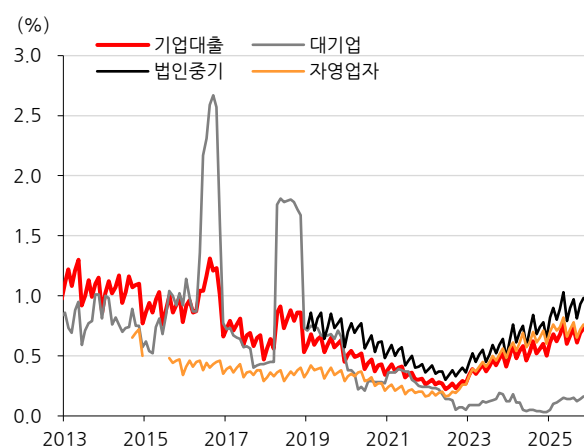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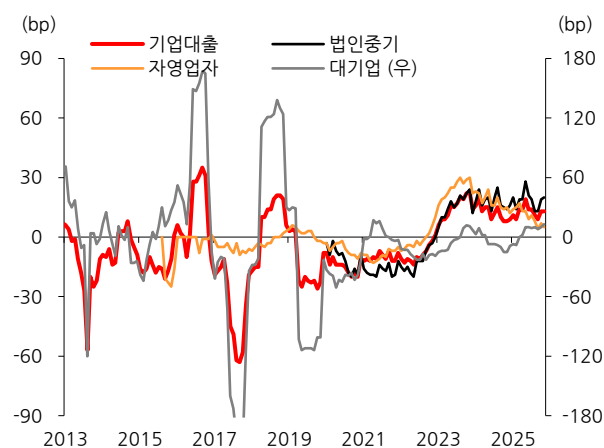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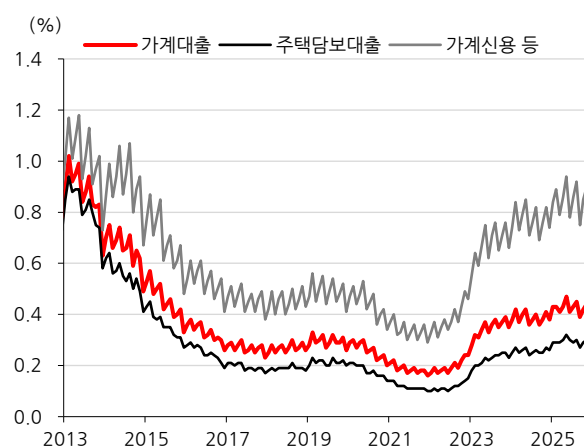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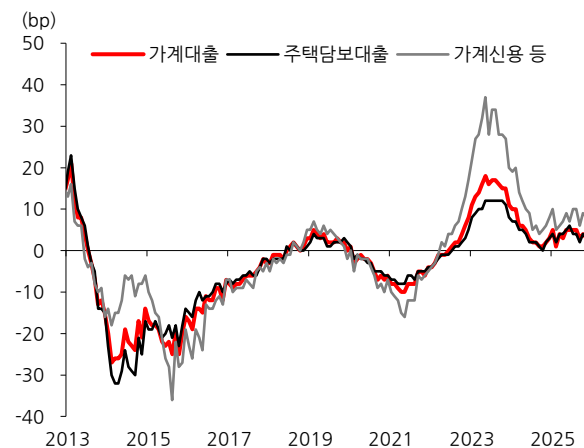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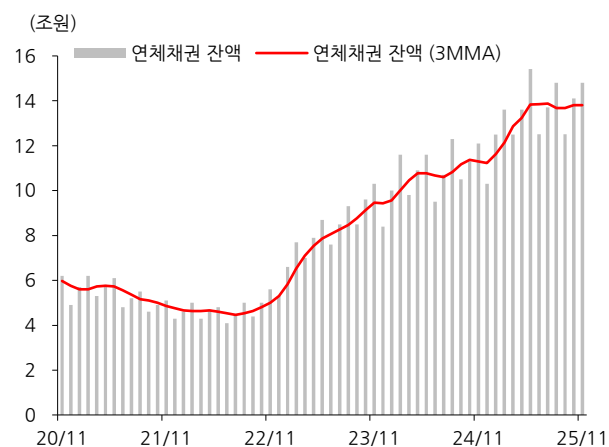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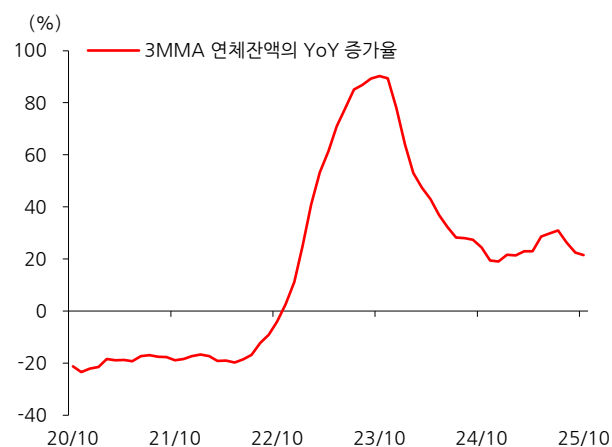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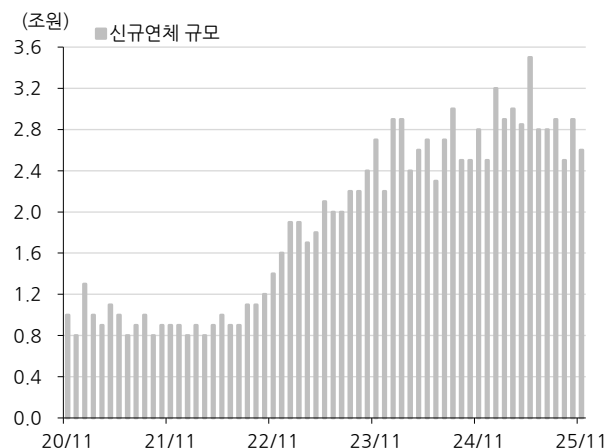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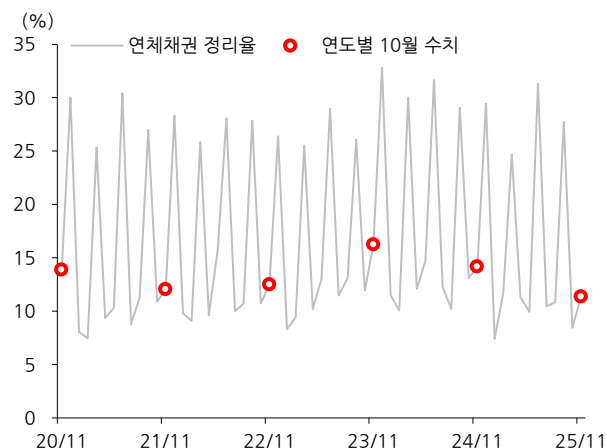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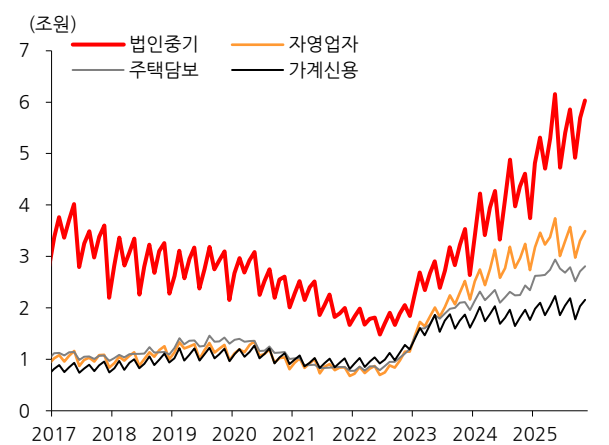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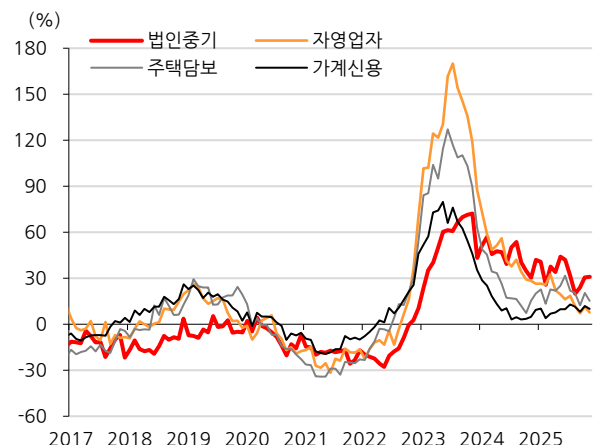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1 월 29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12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